

성인 직장인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명수행의식과 몰입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김소연
극동대학교 교양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Living a Calling and Flow,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So Yeon Kim

Dept. of Liberal Arts, Far Wes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성인 직장인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의 실천적 경험요인인 소명수행의식과 몰입의 매개효과와 자기신념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성인 185명을 대상으로 소명의식, 삶의 만족, 소명수행의식, 몰입과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60일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직장인의 소명의식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소명수행의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셋째, 몰입은 소명수행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소명수행의식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2개를 설정한 후, SPSS 20.0과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구조방정식(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직장인의 소명수행의식과 몰입 등의 실천적 행위에 대한 중요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of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living a calling and flow in the process of perceiving a calling influencing according to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a pool of adult professionals.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conducted from June to July, 2016, on 185 people working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he following are the study hypotheses. First, perceiving a calling will influence life satisfaction. Second, living a calling will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ird, flow will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Fourth, self-efficacy will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 calling and flow. In accordance with previous research, a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as used to examine the hypotheses. As a result, the first research model was selected and the hypotheses were supported.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the foundation, this research paper propose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Keywords : flow, life satisfaction, living a calling, perceiving a calling,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So Yeon Kim(Far West University)

Tel: +82-10-5661-2331 email: soykim68@hanmail.net

Received February 6, 2017

Revised February 27, 2017

Accepted March 10, 2017

Published March 31, 2017

1. 서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행복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오늘날 행복은 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OECD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인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전체 25위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갤럽 조사(2014)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웰빙 지수는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6년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에서 직장인 11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6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점수 6.6 점보다 낮은 것이다. 2015년 취업포털 Jobkorea가 남녀 직장인 182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 결과에서도 불만족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만족한다(20.3%)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47.1%)으로 나타났다.

심리학 분야에서 행복은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삶의 만족’ 또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1,2]. 선행연구들에 의하면[3,4], 행복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명’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소명은 자기를 넘어서는 초월적 부름의 경험으로 삶에서 자신의 일과 역할을 특정 목적이나 의미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이다[5].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소명은 일과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명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Duffy, Allan, & Bott[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커리어를 소명으로 인식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son et al.[7]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열정과 직무 및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Duffy & Sedlacek[8] 그리고 Steger et al.[9] 또한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정적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우리는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두 요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과 조절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Aristoteles는 행복을 인간 행위의 궁극 목적으로서의 최고선이라고 규정하면서 행복은 테오리아(순수한 이론적 탐구활동)와 덕에 따른 활동인 프락시스를 전제한다고 하였다[10,11]. 즉 행복이란 ‘잘 사는 것’으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인 행동에 따라오는 탁월한 이성적 활동이자 실천적 합리성이라는 것이다[11]. 소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삶의 만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Torrey와 Duffy[12]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ffy와 Allan, Autin, Bott[13] 또한 소명을 인식하는 것과 소명으로 사는 것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소명으로 사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지만, 소명을 인식한 후 소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게 되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소명의식은 소명실행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 이는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실천적 행위요소가 할 수 있는 소명수행과 연관된 또 다른 변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Csikszentmihalyi[14]는 행복감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sikszentmihalyi[15]는 삶이란 노력 없이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삶의 질은 우리가 ‘행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경험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몰입’을 제안하였다. 몰입이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의식이 경험으로 딱 차있는 상태를 말한다. 몰입하는 순간에는 느끼는 것과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짐으로써 우리는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의식이 성숙해짐으로써 배움이 발생한다. 그는 몰입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기목적적 태도를 강조한다. 자기목적적 태도는 그 일이 좋아서, 그 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자기목적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몰입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과

역량향상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16-19]. 홍다미[42]의 연구에 의하면, 소명수행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몰입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의 관점에서 보면, 삶에 대한 만족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에 대한 의미를 확장시키고 ‘나’의 존재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과정적 삶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은 외적인 상황요인보다 내적 동기나 의미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이 크다[6,16,20]. 특히,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에 원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의 현장에서 의식을 행위로 이끌고 더 나아가 만족으로 연결하는 경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25]. Bandura[23]는 과제에 집중하고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언급하였고, Csikszentmihalyi[15] 또한 몰입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실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기술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수미[26]의 연구에서도 몰입은 자기효능감과 성취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의식은 그것을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내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행함’, 즉 수명수행과 몰입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과 기대요인인 자기효능감은 조절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수명수행 의식이 매개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몰입은 소명수행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모형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소명수행의식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직장인의 소명의식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소명수행 의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셋째, 몰입은 소명수행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소명수행의식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성인 2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자의 자료를 제외한 총 185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표본의 속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84명(45.4%), 여성이 101명(54.6%)이었고 사무직 종사자는 124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생산직 종사자는 61명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하였다. 연령별 분포는 20대 39명(21.1%), 30대 54명(29.2%), 40대 51명(27.6%), 50대 31명(16.8%), 60대 10명(10%)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95명으로 51.4%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90명(48.6%)은 무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2 측정 도구

2.2.1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Dik et al.[27]가 개발한 단축판(Brief Calling Scale: BCS)을 장진이와 이지연[2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4문항의 5점 Likerr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소명을 찾았거나 찾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2.2.2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t al.[2]가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를 임영진[2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의 7점 Likerr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2.2.3 소명수행 의식

소명수행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Duffy et al.[6]가 개발한 수명수행 의식 척도(Living Calling Scale: LCS)를 장진이와 이지연[2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의 7점 Likerr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2.2.4 몰입

본 연구에서 몰입 경험 수준에 대하여 측정하기 위하여 Csikszentmihalyi[14]의 몰입경험 9가지를 근거로 Waterman et al.[30]가 개발하고 장훈과 한성열[3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참여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9문항의 7점 Likerr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몰입 수준을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2.2.5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r와 Adams[32]가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양길모[33]가 번역하여 타당화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의 5점 Likerr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AMOS 20.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적합도를 확인하고, 소명수행 의식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네 번째,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construct의 척도들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2) 1차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3) 소명 의식, 삶의 만족, 수명수행 의식, 몰입 등 4개의 constructs 모두 포함되는 측정모형에 대해 공분산행렬을 이용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Hair et al.[34]은 모형적합도(model fit) 값으로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와 badness-of-fit index를 모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chi^2(df)$, CFI, RMSEA를 대표적인 지수(index)로 제안하였다. 적합도 기준으로는 CFI>.90, RMSEA가 $\leq .08$ 이면 수용 가능하다고 제시하였고, 단 χ^2 의 p-value는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수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이 Hair et al.[34]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집중타당성은 항목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값이 모두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각 항목의 평균분산추출값: 표준화 요인부하량 제곱의 평균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5보다 크면 집중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Fornell과 Larcker[35]는 평가 대상의 두 constructs를 대상으로 각 construct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이 두 constructs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크면(AVE>상관계수의 제곱값) 두 construct 간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construct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졌거나 논리적으로 수용되고, construct의 측정도구 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나면 법칙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construct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섯 번째, 소명수행 의식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의 값을 기준으로 표본 값을 High 집단과 Low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의 해당경로를 free로 둔 모형(Free 모형)과 그 경로를 두 집단에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제약 모형: constraint model)을 각각 분석하여 두 모형 간의

χ^2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Free모형과 제약모형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면 Free 모형이 더 좋은 모형으로 선택되고 그 변인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은 지지된다.

여섯 번째, 연구모형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한 후 각 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SEM)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과 경쟁모형의 자유도(d.f.) 변화에 따른 χ^2 값을 비교하였다.

일곱 번째, 소명수행의식과 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직접경로를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명의식, 삶의 만족, 소명수행의식, 몰입,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사무직과 생산직 분류에 따른 직업의 업무 형태는 소명의식 추구와 낮은 상관을 보였고(사무직 종사자가 생산직 종사자보다 소명수행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종교의 유무는 소명의식과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무교인 직장인보다 소명의식이 높게 나타남). 그 외의 연령, 성별, 직업의 업무 형태(사무직/생산직), 종교의 유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들과 주요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 분석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 소명수행의식, 몰입, 자기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성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값이 2와 7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수집된 자료는 분석에 적합한 정규분포임을 가정할 수 있다[36].

본 연구에서 가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의식 그리고 소명수행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몰입 간에도 상당한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1. Correlation varianc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perceiving a calling	life satisfaction	living a calling	flow	self-efficacy
perceiving a calling	1				
life satisfaction	.459**	1			
living a calling	.579**	.605**	1		
flow	.349**	.382**	.162*	1	
self-efficacy	.471**	.290**	.286**	.496**	1
means	3.65	4.10	4.22	4.93	3.81
std	0.79	1.30	1.51	0.99	0.54
skewness	-.415	.045	-.156	.018	.106
kurtosis	.431	-.194	-.625	-.522	-.764

*p<.05, **p<.01

3.3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에 앞서 각 construct의 척도들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명의식의 Cronbach's α 는 .83, 삶의 만족은 .92, 소명수행의식은 .95, 몰입은 .88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87로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명의식, 삶의 만족, 소명수행의식, 몰입에 대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명의식($\chi^2=2.45$, d.f.=2, p=.29, GFI=.993, CFI=.999, RMSEA=.035), 삶의 만족($\chi^2=11.77$, d.f.=4, p=.01, GFI=.975, CFI=.988, RMSEA=.013), 소명수행의식($\chi^2=12.69$, d.f.=7, p=.08, GFI=.977, CFI=.995, RMSEA=.066), 몰입($\chi^2=21.97$, d.f.=16, p=.14, GFI=.969, CFI=.991, RMSEA=.045)의 항목들은 각각 해당 construct에 대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명의식, 삶의 만족, 소명수행의식, 몰입 등 4개의 constructs 모두 포함되는 측정모형에 대해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몰입의 1번과 7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chi^2=405.942$ (d.f.=198, p<.01), CFI=.932, RMSEA=.076으로 나타났다. 이는 Hair et al.(2006)이 제시한 적합도 판단 기준(CFI>.90, RMSEA는 \leq .08)을 충족시킨 것이다.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값(AVE)을 계산한 결과, 소명의식은 .59, 삶의 만족은 .68, 소명수행의식은 .77, 몰입은 .53으로 모두 .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척도의 신뢰도가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이 .5

를 상회함에 따라 각 construct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집중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2006).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의식, 삶의 만족, 소명수행의식과 몰입 간의 상관관계값으로부터 제공값을 계산하였는데, 상관관계의 제공값들 중 가장 큰 값은 .34(수명수행의식-삶의 만족)으로, 이는 가장 작은 평균 추출분산값(AVE) .53(몰입)보다 작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명의식, 삶의 만족, 소명수행의식, 몰입 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construct 간에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칙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 2. CFA results

	item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CR	AVE
perceiving a calling	1	.82	.85	.59
	2	.88		
	3	.80		
	4	.50		
life satisfaction	1	.87	.82	.68
	2	.76		
	3	.81		
	4	.86		
	5	.81		
living a calling	1	.80	.88	.77
	2	.94		
	3	.80		
	4	.88		
	5	.94		
	6	.90		
flow	2	.60	.80	.53
	3	.68		
	4	.75		
	5	.76		
	6	.88		
	8	.70		
	9	.67		

*p<.05, **p<.01

3.4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 2, 3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1]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hi^2=434.839(d.f.=200, p < .01)$, CFI=.923, RMSEA=.08, RMR=.161로 나타났다. 이는 Hair et al.(2006)이 제시한 적합도 판단 기준(CFI>.90, RMSEA는 $\leq .08$)을 대체로 충족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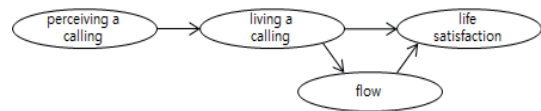


Fig. 1. Hypothetical model

본 연구의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의 값을 기준으로 표본 값들을 High 집단과 Low 집단으로 구분한 후 Free 모형과 제약 모형을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Free모형은 $\chi^2=698.129, d.f.=400, p < .01$ 으로 나타났다, 제약 모형은 $\chi^2=703.354, d.f.=401, p < .01$ 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 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 \chi^2=5.225, d.f.=1$ 로 χ^2 값의 차이가 3.84보다 크기 때문에 χ^2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고 Free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소명수행의식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된다.

본 연구모형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2]와 같은 경쟁모형(몰입의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쟁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 결과, $\chi^2=512.033, d.f.=201, p < .01$ 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2 간의 χ^2 차이를 검증한 결과, $\Delta \chi^2=5.225, d.f.=1, p < .01$ 으로 χ^2 값의 차이가 3.84보다 크기 때문에 두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모형의 χ^2 값이 경쟁모형의 χ^2 값보다 77.194 작고, 경쟁모형의 CFI=.89, RMSEA=.09, RMR=.395로 모형의 적합도도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모형적합도 수준을 비교할 때에 사용되는 PCFI, PGFI, PNFI, AIC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은 PCFI=.799, PGFI=.645, PNFI=.751, AIC=540.83인데 반해 경쟁모형은 PCFI=.781, PGFI=.633, PNFI=.734, AIC=616.03으로 연구모형의 PCFI, PGFI, PNFI의 값은 높고, 낮을수록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C 적합도 지수 값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1, 2, 3, 4는 모두 지지되었고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도가 높고 타당한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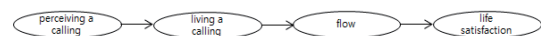


Fig. 2. Competition model

Table 3. GFI of models

	x ²	d.f.	PCFI	PNFI	PGFI	AIC
Hypothetical model	434.839	220	.799	.751	.645	540.83
Competition model	961.762	342	.781	.734	.633	616.03

3.5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치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소명의식→소명수행의식’, ‘소명수행의식→삶의 만족’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명수행의식→몰입’, ‘몰입→삶의 만족’의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명의식은 소명수행의식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소명수행의식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또는 몰입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3. parameter estimate of selected model

		coefficient	SE	standardized coefficient	CR	
perceiving a calling	→	living a calling	1.506	.274	.581	5.502***
living a calling	→	life satisfaction	.562	.069	.582	8.210***
living a calling	→	flow	.126	.046	.216	2.729**
flow	→	life satisfaction	.543	.110	.329	4.930***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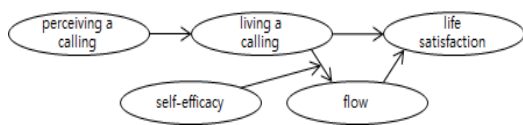


Fig. 3. Selected model

3.5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소명수행의식과 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직접경로를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원자료(N=550)에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경험적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간접효과($\beta = .867$)는 95% 신뢰구간이 .546-1.332이고 p값은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소명수행의식과 몰입은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논의

본 연구는 성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소명수행의식과 몰입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소명수행의식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소명의식은 소명수행의식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몰입은 소명수행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소명수행의식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의식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 직장인들의 소명의식 수준이 직업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에서의 만족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Davidson & Caddell[5]과 Wrzesniewski et al.[37], 이은경[38] 등의 선행연구들[9,2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명료화함으로써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의 토대가 됨으로써 삶의 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소명수행의식이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을 구별하여 그 차이를 제안하는 최근의 연구들[1,6,12,13,28,3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개인이 삶에서 만족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명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행위가 뒤따라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소명수행의식은 직접적으로 또는 몰입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몰입이 삶의 만족, 웰빙 등 긍정심리학적 변수들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7,16-19,40]을 지지하는 것이다. 몰입은 자신의 목표실행 과정에의 참여와 헌신을 내포하는 자기목적적 경험[14]이자 실천적 행위의 한 측면이다. 몰입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여기에서 고도의 주의 집중하여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내적 동기화된 활동이다. 따라서 몰입은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성취 경험은 ‘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을 열어 줌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을 이끌게 된다. 몰입이 소명수행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개인이 현재 자신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 내적 동기화되어 몰입이라는 구체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삶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소명수행의식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은 과제에 집중하고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몰입과 성취 간의 관계 및 긍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21-26,41].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념[23,41]으로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이다.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내적 동기를 일으키고 행동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소명수행의식과 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한 소명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자기 신념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나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일에 헌신하고 몰입하도록 이끄는 매개 기능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 직장인에게 있어서 소명의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첫째, 연구 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사무직 종사자가 6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 직장인 모두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몰입의 1번과 7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비록 척도의 타당성은 확보되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제외한 문항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Min-young Jung & Han-na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ce a calling, living a call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mpany employees: The mediating effects of meaning in life and career ident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6, pp. 279-295, 2015.

[2] Diener, E., Emmoms, R. A., Larsen, R. J., &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measure of go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pp. 71-75, 1985.
DOI: https://doi.org/10.1037/s15327752jpa4901_13

[3] Jai Sun Koo & Eun Kook M. Suh, Happiness in korea: who is happy and whe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5, no. 2, pp. 143-166, 2011.

[4]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no. 3, pp. 545-575, 198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5] Davison, James C. & Caddwill, David P.,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33, no. 2, pp. 135-147, 1994.
DOI: <https://doi.org/10.2307/1386600>

[6] Duffy, Ryan D., Allan, Blake A., Bott, Elizabeth M. T.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vestigating mediators and moderators. *J Happiness Stud* 13, pp. 469-479, 2012.
DOI: <https://doi.org/10.1007/s10902-011-9274-6>

[7] Peterson, C., Park, N., Hall, N., & Seligman, M. E. P., Zest and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 pp. 161-172, 2009.
DOI: <https://doi.org/10.1002/job.584>

[8] Duffy, R. D., & Sedlacek, W. E., The salience of career calling among college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and links to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 pp. 27-41, 2010.
DOI: <https://doi.org/10.1002/j.2161-0045.2010.tb00128.x>

[9] Steger, M. F., Pickering, N., Shin, J. Y., Dik, B. J.,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 pp82-96, 2010.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9350905>

[10] Aristoteles, *Nicomachean Ethics*, translated by Sang Jin Kang & Ja Hong Kim, 488, Gil, 2011.

[11] Sang beom Pyeon, Happiness, Desire-satisfaction, and Rationality in Aristotle's Ethics, *Philosophical Ideology*, 58, pp. 95-126, 2015.

[12] Torrey, C. L., & Duffy, R. D., Calling and well-being among adults: differential relations by employment statu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20, no. 4, pp. 415-425, 2013.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12448894>

[13] Duffy, Ryan D., Allan, Blake A., Autin, Kelsey L., & Bott, Elizabeth,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it's not about having it, it's about living i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60, no. 1, pp. 42-52, 2013.
DOI: <https://doi.org/10.1037/a0030635>

[14] Csikszentmihalyi, M., *Finding flow*. 240,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1997.

[15] Csikszentmihalyi, M., *Flow: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336, New York: Harper & Row, 1990.

[16] Mi Hye Kim & Hee Young Kim, Analysis of flow and happiness using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and experience sampling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4, pp. 1945-1955, 2015.
- [17] Young Ju Joo, Ae Kyung Chung, Yeon Wook Im & Ga Yun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Learning Flow, and Satisfaction in College Lectur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 15, no. 3, pp. 217-238, 2010.
- [18] Hans 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flow in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Mihaly Csikszentmihalyi & Isabella Selega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pp. 138-14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19] Ishimura I. & Kodama M., Domensions of flow experience in Japan collage students: relation between flow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J. Health Pschol.*, 13, pp. 23-34, 2006.
- [20] Jaisun Koo & Eunkook M. Suh., Happiness in Korea: Who is happy and whe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5, no. 2, pp. 143-166, 2011.
- [21] Jeong Wook Lee & Jin Mo Kim,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Individual Creativ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s,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24, pp. 21-48, 2012.
- [22] Hyeong Ran Har & Hye Ja Kang,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Police Officer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The Korean Review of Public Autonomy Administration*, vol. 26, no. 2, pp. 121-142, 2012.
- [23]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 191-215, 1977.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24] Major, B., Cozzarelli, C., Sciacchitano, A. M., Cooper, M. L., Testa, M., & Mueller, P. M.,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pp. 452-463,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9.3.452>
- [25] Puzziferro, M., Online technologies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as predictors of final grade and satisfaction in college-level online courses.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vol. 22, no. 2, pp. 72-89, 2008.
DOI: <https://doi.org/10.1080/08923640802039024>
- [26] S. M.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intrinsic value, test anxiety, instructional design, flow and achievement, A master's degree of Euhwomans university, 2010.
- [27] Dik, B. J., Eldridge, B. M., Steger, M. F., & Duffy, R. 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acation questionnaire(CVQ) and brief calling scale(BC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20, pp. 242-263, 2008.
- [28] Jin Yi Jang & Jee Yon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Meaning, Living a Calling, Life Meaning, and Job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1, pp. 259-278, 2014.
DOI: <https://doi.org/10.15703/kjc.15.1.201402.259>
- [29] Young Jin Lim,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mong Korean Police Officers, University Students,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1, no. 3, pp. 877-896, 2012.
- [30] Waterman, A. S., Schwartz, S. J., Goldbacher, E., Green, H., Miller, C., & Philip, S., The roles of self-determination the balance of challenge and skills, and self-realization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9, no. 1, pp. 1447-1458, 2003.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3256907>
- [31] Seong Yeul Han & Hoon Jang, Reconstructing the Function of Flow: Moderate Effects of Significant Other on Relationship between Flow and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4(40), pp. 43-62, 2010.
- [32] Sherer, M. & Adams, C. H., Construct validity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vol. 53, no. 3, pp. 899-902, 1983.
DOI: <https://doi.org/10.2466/pr0.1983.53.3.899>
- [33] Kil Mo Yang,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empowerment, the job-relat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work performance of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5, no. 10, pp. 39-61, 1999.
- [34] Hair, Joseph F. Jr., Rolph E. Anderson, Ronald L. Tatham, & William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6th ed.* New York: Macmillam Publishing Company, 2006.
- [35] Fornell, Clase & Davi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pp. 39-50, 1981.
DOI: <https://doi.org/10.2307/3151312>
- [36] Lei, M., & Lomax, R. G.,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ed Equation Modeling*, vol. 12, no. 1, pp. 1-27, 2005.
DOI: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1201_1
- [37] Amy Wrzesniewski, Clark McCauley, Paul Rozin & Barry Schwartz, Jobs,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pp. 21 - 33, 1997.
DOI: <https://doi.org/10.1006/jrpe.1997.2162>
- [38] Eun Kyoung Lea,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Youth Work as a Vocation and Attendant Levels of Job Satisfaction,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vol. 22, no. 10, pp. 115-140, 2011.
- [39] Duffy, Ryan D. & Autin, Kelsey L., Disentangling the link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ving a cal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60, no. 2, pp. 219-227, 2013.
DOI: <https://doi.org/10.1037/a0031934>
- [40] Bryce J & Haworth J., Wellbeing and flow in sample of male and female office workers. *Leisure*, 21, pp. 249-263, 2002.
DOI: <https://doi.org/10.1080/0261436021000030687>

- [41] Bandura, 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pp. 122-147, 1982.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37.2.122>
- [42] Da Mi Hong, The effect of living a calling on life satisfaction among company employees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nkuk, 2017.

김 소 연(So-Yeon Kim)

[정회원]



- 200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KC대학교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교양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상담, 미술치료